

1)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와같은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서 "들어와도 나가도"라는 말은 출입을 말 하죠.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은 시편 121편의 결론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입을 지키신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단순히 여러분의 바쁜 출퇴근 길을 지켜주신다는 뜻일까요? 러쉬 아워에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도록 도우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는 일들을 보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요. 성경에 봐도 예수님을 알파와 오메가되 신다고 했는데,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시심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시작만 좋은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끝만 좋은 것도 아닙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 모두가 소중한요.

또 원어성경에 보면 출입에 대해서 이런 의미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먼저 '나가다'에 해당하는 단어를 보면, [야짜]라고 하는데 '떠나다, 실패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요. '들어오다'에 해당하는 단어는 히브리말로 [보]라고 하는데, '따르다, 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출입에 대해 이야기할 땐, 사실 나가고 들어가는 것에는 어떤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의미가 담겨 있지 않죠. 하지만, 히브리어 원어는 달라요. 여기서 하나는 실패하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있고, 다른 하나는 연다라는 긍정적인 뉘앙스가 담겨있습니다.

풀어보면, 들어가는 것이 일의 시작이라면 나가는 것은 일의 끝이라고 말해 볼 수 있겠죠! 또, 들어가는 것이 좋은 일이라면 나가는 것은 나쁜 일이라고 댓구를 맞춰볼 수 있겠구요. 들어가는 것이 잘되는 일이라면 나가는 것은 안되는 것이구요, 들어가는 것이 성공이라면 나가는 것은 실패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들어가는 것이 건강이라면 나가는 것은 병든 것이기도 하죠.

다시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들어와도 나가도..." 즉, 성공을 해도 실패를 해도 그것이 복이 된다는 의미가 되요. 내가 지금 병이 들었는데 그것이 복이 된대요. 내가 지금 망했는데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되죠? ㅎ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되는 것이 말이 되게끔 하세요! 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약속을 누구에게 약속하셨나하면, 아까 신명기 28장을 언급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셨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해서 노예로 팔려 갔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며 주인에게 인정받는가 했더니, 주인 마님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루 아침에 감옥 신세를 지게 됐어요.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지나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복된 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배우는 것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 곁에 서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주구하고 있다면, 어떠한 악 조건과 열악한 환경일지라도 탓하지 말아야 해요.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 잘 준행하면 우리생각에는 나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출입을 다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성경적인 복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2) 시편 121편 말씀의 서두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는 질문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대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산은 하나님께서 계신 거룩한 곳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들어오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성전에서 나아가서 세상으로 향하는 발걸음도 지키신다는 의미에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 사는 중 이라면 주일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나옵니다.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일이 많 아도 세상을 뒤로 하고 하나님께 예배해요. 지금은 바빠서 나중엔, 나중엔, 하다가 정말 나중엔 돌아온 이들이 별로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주님의 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그 우선순위는 너무 중요하죠. 그렇다고,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아무리 은혜 많이 받고, 아무리 성도들과 교제하고 하는 것이 좋아도, '여기있는 것이 종사오니...' 하고 정지해 있지 말고 세상으로 나아가야합니다. 한주 한주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의 능력이 되고, 교훈이 되고, 생명이 되게끔 매 주일 하나님의 말씀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 시길 바랍니다.

3)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 참 어려운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십니까?

G.K. 체스터튼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이웃과 원수는 같은 사람인 경우가 허다하다." (The Bible tells us to love our neighbors, and also to love our enemies: probably because they are generally the same people.-G.K. Chesterton) 원수갚음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 어려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사실.... 남을 미워하고 증오하며 사는 가운데 우리의 삶과 영혼은 피해를질 수 밖에 없어요. 대신 남을 용서하시 전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주님께 용서받고 있는지 깨닫고 남도 용 서하며 자유롭게 살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원수갚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바로 다윗이지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이스 라엘을 침공했을 때, 이스라엘에 감히 골리앗과 맞서려는 장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풍전등화의 위기였죠. 그때 혜성처럼 나타난 인물이 베들레헴의 목동 다윗이었죠.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 라엘을 위기에서 구하고 나라의 영웅이 되었어요. 그 이후에도 다윗은 나라를 위해 혁혁한 공을 세웠 고, 사울 왕은 다윗을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뒤 마음이 변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 했

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의 집념은 집요했습니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정처없는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죠. 사울 왕은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 3천명으로 이루어진 특공대를 구성하고, 자신이 그 특공대를 직접 지휘하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왜 그토록 다윗을 집요하게 죽이려 했는지, 그 이유가 더 기막히죠!

다윗 장군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온 날, 온백성들이 나와서 다윗의 승전을 축하하는데 그 자리에 사울 왕도 있었죠. 수많은 여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주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소리 높여 노래했죠. 다윗의 인기가 사울 왕을 열배나 앞지른 셈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의 인기가 자신의 인기를 앞지른 것을 확인한 그날부터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질투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죠. 백성의 안녕을 위해 다윗을 제거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불의한 악인이었기에 징벌하려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은 오로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고, 자신의 사후에 자신의 아들이 그 왕권을 아무런 장애물 없이 유지하기 만을 바랬습니다. 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 남의 집 귀한 아들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은 권력의 선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의 공의를 좇아 백성을 바르게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지키는 한, 자신의 왕조는 자기 자식을 거쳐 천 년만년 이어지리라 기대했을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기 위해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왕조는 불과 40년 만에, 그의 시대에, 그의 모든 자식과 함께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했더니, 그 환난에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 내셨습니다. 그의 출입을 지켜셨습니다!

4) 8절. "여호와께서 . . . . . 지키시리로다." [사마르]라는 말은 눈꺼풀을 뜻하는 [세무로트]에

서 나왔는데, 눈꺼풀은 눈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죠. 만일 눈꺼풀이 열리면, 눈은 볼 수 있습니다. 닫히면, 눈은 쉬게 되고, 눈은 보호받지요. 눈꺼풀의 모든 동작은 눈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주님은 저희들을 그의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시 17:8).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가운데 지금 당장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걸 저도 경험해요. 제가 다 이해한 다음에 순종하겠나?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바른 믿음이라면 순종이 먼저예요! 말씀에 순종해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낮에도 밤에도, 일을 시작할 때도 마칠 때도, 우리가 부활 때에도 가난 할 때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학업과 자녀들의 삶을 은혜와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또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